

광주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앞두고 또 난관

2020년 공사 폐기물 발견 후 중단 우여곡절 끝에 2023년 2월 준공 새 건물 주차공간 확보 못해 불편 "임시 주차장 확보 등 방안 모색"

광주 서구가 건립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커뮤니티센터)가 6월 개관을 앞두고 주차장 확보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2021년 개관에서 무려 2년이나 밀려 준공된 상황인데도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서구가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3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월 준공된 커뮤니티센터는 총 226억여원이 투입됐으며, 노인복지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등이 들어서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 시설이다.

이곳은 준공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은 곳이었다. 지난 2016년부터 서구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 2021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2020년부터 착공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이 발견되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당시 발견된 폐기물은 과거 풍암동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묻은 쓰레기가 인근 경사가 가파른 커뮤니티센터 부지로 떠밀려온 것이었다.

이에 서구는 주차장이 들어서기로 했다



광주 서구 풍암동에 위치한 복합커뮤니티센터 전경.

지하층을 없애, 연면적 약 1000㎡(6619㎡→5595㎡)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립장 구역으로부터 좀 더 거리를 두고자 건물과 도로의 간격을 26m에서 7m로 줄여 도로변 방향으로 옮겼다. 서구는 이러한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진

행, 다시 공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줄어든 만큼 확보할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사를 밀어 붙인 점이다.

당초 서구는 지하주차장에 법정 주차면수(연면적 6619㎡기준 45대)와 광장 구

역에 주차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려 했다. 그러나 폐기물이 발견돼 연면적을 줄여 법정 주차면수가 37대로 줄었고, 추가로 마련하려 했던 주차공간도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옮겨지면서 광장이 없어지자 무산됐다.

풍암동에 거주하는 박모(37)씨는 "사전에 폐기물이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구가) 욕을 먹었던 걸로 하는데, 이번에는 주차장 문제까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답답하다"며 "서구의 주차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닌데 큰 건물 하나 지으면서 주차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부실행정이다"고 비판했다.

당시 발견되는 폐기물을 그때그때 처리하며 지하주차장을 계획대로 조성하지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지하층을 없애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 진행됐다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커뮤니티센터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과 관련해 잦은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투입 예산이 137억 원이나 증가했다.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대책을 세우지 못해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구 측은 "노인회관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평소 이용 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연이나 행사 때에는 방문객들의 차량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인근 시설에 협조를 구해 주차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놀이기구 무허가 운영 업체 적발

지난해 6월~1월 10차례 운영

광주 지산유원지를 운영하는 업체가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지 전 놀이기구를 운영해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기로 했다.

13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에 모노레일과 리프트카를 운영해 온 A사는 2014년 바이킹과 범퍼카·회전목마 등 놀이기구 4개를 새로 설치하고 지난해 6월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A사는 해당 놀이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관할기관에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을 냈지만, 동구는 신규 놀이기구에 대한 안내

매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 놀이기구는 안내매표소를 비롯해 소방 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이 일정 거리 안에 갖춰져 있어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A사는 안내소를 설치한 뒤 지난 1월 허가를 신청을 냈고, 동구는 같은 달 20일에 놀이기구 운용을 허가했다.

그러나 놀이기구를 탄 일반인들이 허가가 나기 전 기간에 놀이기구를 이용한 사실을 SNS에 게재하면서 A사의 무허가 운영이 적발됐다.

동구가 이용객 SNS 등을 통해 확인한

무허가 운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까지 최소 10차례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안내매표소 설치에 앞서 관심 있어하는 관광객 일부를 태웠을 뿐 상업적으로 태우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식 허가 이전에 운행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보고, A사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성현 기자

수십억 불법 경마·도박사이트 운영 3명 징역형

수십억 규모의 불법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B(47)·C(51)씨에게 각각 징역 3년·2년 2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 1억 3500만원·7억 7440만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내외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유지·관리·운영하면서 1665차례에 걸쳐 서버 관리비 14억 158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경마사이트 회원들에게 입금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뒤 적적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30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사회 주관 경마 경주 배당정보 수집·제공, 사이트 운영자 모집, 기술·자금 관리, 도메인 주소 변경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은 마사회가 아닌 자의 승마 투표 행위로 금전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양기람 기자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고흥, 담양, 보성
인원	각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062-385-0515 투어나우: 062-575-8019